

배포일시	2020. 2. 14.(금) 14:00 (총 3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관측예보과	담당자	과장 김회철 사무관 신건명
		전화번호	063-249-3245

16일~17일 “많은 눈” 이후 “추위”

- 16일 새벽부터 날씨 빠르게 나빠져 -

- 16일~17일 많은 눈, 빙판길 조심, 대설특보 가능성
 - 16일 아침에 전라북도 비 또는 눈, 16일 오후~17일 눈
 - 16일 밤~17일 오전, 전라북도 대설특보 가능성
- 기온 큰 폭으로 떨어져 바람 강해 체감온도 뚝
 - 나들이, 산행 등 야외활동에 유의, 냉해피해 주의



[2월 16일 아침]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15~17일 비/눈 전망]

-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15일(토) 밤에 전북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이후 16일(일) 새벽에는 전라북도 전지역으로 확대된 후,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 16일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겠으니, 안전 사고 유의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 16일 오후~17일(월)은 대기 하층 1.5km 부근의 영하 12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서해상으로 진출하면서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이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라북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 특히, 16일 밤~17일 오전, 전라북도에 최고 20cm 내외의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이번 눈은 18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으니,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6~17일은 비가 눈으로 바뀌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면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우려되고, 기상변화로 인해 주변 환경이 매우 빠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말 야외활동(나들이, 산행 등)이나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위 전망]

- 16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빠르게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낮기온이 전날보다 15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겠고, 19일까지 추위가 지속될 것입니다.
- 이번 주(10~14일) 동안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 분포를 보인 상태에서 16일 오후~19일 오전은 바람이 강하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하는 추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20일부터는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회복하겠고, 주말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강풍 및 풍랑 전망]

- (강풍) 16일~18일에 전북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5~60km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 내륙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풍랑) 15일 오후~18일 오전에 서해남부전해상에서는 바람이 35~65km/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기 바랍니다.